

20세기 유럽 뒤흔든 역사적 현장을 찾아

‘유럽사 산책’ 1·2
헤이르트 마크 지음

유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수없이 많다. 각국의 여행지나 문화, 역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사회나 경제를 주제별로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국경을 맞댄 채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복했던 복잡다단한 유럽의 역사, 특히 오늘날의 유럽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네덜란드의 신문기자이자 역사와 문화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헤이르트 마크가 쓴 ‘유럽사 산책-20세기, 유럽을 걷다’(전 2권)는 이러한 취지에 딱 들어맞는 책이다.

특히나 현재의 유럽은 기업과 도시,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럽연합’(EU)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 실험을 한창 진행중이고 이러한 점에서 유럽 전체를 아울러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저자는 네덜란드인이 아닌 ‘유럽인’으로서 몇 가지 궁금증과 마주한다. ‘유럽인에게 공통된 역사가 있을까?’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러시아, 스페인 사람을 원탁에 앉혀 놓고 가족사를 얘기하게 하면 과연 어떤 역사가 쓰일까?’ 라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저자는 1999년 1월부터 12개월간 유럽 20여 개 나라, 60여 개 도시를 종횡무진 누볐다. 20세기 말 유럽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지난 100년간 유럽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역사적 현장을 돌아본다는 의도에서다.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저자는 파리로부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유럽



전역을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장정의 첫발을 뗐다. 이후 빈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불씨가 된 황태자 암살사건의 흔적을 찾고 영국과 독일의 적전지와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베르사유를 돌아본다. 볼셰비키 혁명, 나치의 태동,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 비틀스의 부상,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20세기 유럽사의 굵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진 현장을 차례로 돌아본 저자는 보스니아 내전의 상흔을 지닌 사라예보에서 긴 여행을 끝낸다. 저자는 1년에 걸친 기나긴 여정에서 종지, 트럭 운전사, 교수, 극작가, 1·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 평범하지만 20세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 그들 개개인이 경험한 유럽의 역사 이야기를 인터뷰해 다양한 사료와 함께 엮었다.

《옥당·2만5000원, 2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폴란드 비르케나우 수용소 정문. 수백 대의 기관차가 철로를 따라 유대인들을 실어날랐다. <도서출판 옥당 제공>

완성된 이 책이 다른 역사서와 구별되는 이유는 유럽의 역사를 철저히 민중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스스로 “이 책은 과거, 특히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 분쟁과 무지, 역사와 두려움, 가난과 희망에 대한 책이며, 새로운 유럽을 분할하고 연결하는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고 평가한다.

책은 유럽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고, 도시별로 장(章)을 묶었지만 전체를 읽어가다보면 ‘유럽’이라는 공간의 역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책 제목처럼 역사의 중요한 장면 장면들을 하나 둘 맞춰가며 산책하다 보면 머릿속에 거대한 유럽사를 그려내는 지적 유희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상세한 유럽 지도들과 각 도시의 현장 사진들을 곁들여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점도 이 책의 미덕이다.

《옥당·2만5000원, 2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채소 활용 건강 요리·레시피 공개

‘채소가 맛있다’
김수인 지음



광주MBC 생방송 전국시대 ‘김수인’의 약이 되는 밥상을 진행하는 김수인(전남도립대 한국음식과) 교수가 웰빙시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책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채소가 맛있다’를 출간했다.

저자 김 교수는 어머니 이상수씨를 통해 한국요리를 배웠으며 예코푸드와 자연치유 관련 메뉴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번 책은 특별히 몸을 가볍게 하는

이 높아진 시점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일품요리와 레시피는 보기만해도 입맛을 돋군다. 저자는 “요리를 개발할때부터의 열정과 이를 사진으로 담은 순간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워북·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를 위해

‘내 곁에 모로 누운 사람’
김용택·이은영 지음



‘침전지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63)씨. 하지만 그의 삶이, 부부의 삶이 진매마를 풍경처럼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다. 올해로 26년차 부부인 김용택·이은영 커플이 주고받은 편지 83통을 엮은 ‘내 곁에 모로 누운 사람’이 출간됐다.

시인은 책에서 부부는 ‘실날같은 외줄을 타며 생의 끝까지 가서 바다를 치고 살아 돌아온, 인생의 승리자들’이라고 묘사한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연이 소개되고 입대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기대와 염려도 전한다.

아울러 이씨는 고부 관계에 대한 생각도 진솔하게 남편에게 밝힌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요즘, 부부와 가정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는 책이다. <미음산책·1만1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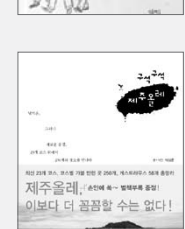
▲황금비율의 진실=루마니아 출신의 과학 저술가 마리오 리비오가 완벽을 창조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정의되는 황금비율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친다. 피라미드와 파르테논부터 나선 은하와 주식시장까지 시대와 분야를 넘나들면서 황금 비율의 학문적 정의와 활용을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황금 비율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책과 논문에 반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다. <공존·2만원>



▲세익스피어, 사랑의 대화=대문호로 추앙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연인들이 나누는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마이클 베스트 교수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묘사된 당대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작가가 추구하는 사랑의 유형을 소개한다. 비극적인 사랑부터 행복하지만 비현실적인 사랑까지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다양한 색깔의 사랑을 음미한다. <영림카디널·1만8000원>



▲환영=장편 ‘나쁜 괴’로 이름을 알린 김이철(36)의 새 장편소설. 가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고스트런 현상과 처열하게 싸워나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뒷마당을 때어 놓고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하는 ‘운영’의 불현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자음과모음·1만원>



▲이 팬티는 어디에서 왔을까=신론 칼럼과 여행관련 책을 써온 영국출신 작가 조 베넷이 중국을 ‘팬티’라는 새로운 매개로 살폈다. 우루무치의 목화밭에서부터 할인매장을 거쳐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중국산 팬티 제조과정을 추적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느라 현재는 돌보지 않는 중국과 중국인들을 만난다. 거대 경제 국가로 부활 중인 중국의 화려한 모습과 그 이면의 어두운 모습을 추적했다. <알마·1만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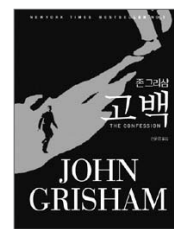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김병길 지음. 한국 근대 역사 소설의 계보를 다룬 학술서. ‘자미’는 재미의 옛말로 책은 1920~30대 호황을 누리던 역사 소설의 계보와 발전 과정을 다뤘다. 저자 김병길씨는 당시 신문에 연재된 역사 소설들의 통속성과 상업적 재미에 주목했다. 멜로드라마적 서사 전개, 연애담, 인물 미화, 선정적 묘사, 출세담과 복수담 등 대중에 어필한 요소를 분석했다. <삼인·2만원>

▲구석구석 제주올레=프리랜서 여행작가 박상준씨가 제주 올레길 최신 23개 코스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각 코스별로 난이도를 알려 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골짜기 전화번호도 수록했다. 작가가 소상하게 알려주는 올레길 이야기와 직접 찍은 사진은 마치 함께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올레길 전체 코스를 요약 정리하고 계절과 나이, 체력, 분위기 등 취향에 따른 최적의 코스를 추천하는 별책부록도 유용하다. <스티일북스·1만5000원>



부패한 사법체제에 보내는 날카로운 시선

‘고백’
존 그리섬 지음



최고의 법정 스릴러 작가 존 그리섬(56)의 최신작 ‘고백’이 번역, 출간됐다.

O.J.심슨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종차별적 살인죄 조작을 소재 삼은 이번 소설은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스릴러의 재미를 선사하는 동시에 진중한 사회 문제의식까지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은 치어리더의 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9년간 사형수로 살아온 흑인 미식축구 선수 돈테 드림의 이야기다. 그의 사형 집행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그날, 사형수 감방에서 450km나 떨어진 캔자스 주 교회에서 는 이 사건의 진범인 트레비스 보이엇의 고백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소설은 비밀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텍사스로 달려온 목사 키이스와 돈테 드림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9년을 할것같이 싸워 온 변호사 로비 플랙의 사활을 건 전쟁이 벌어지면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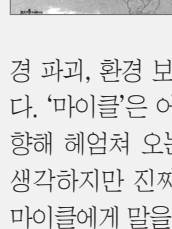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사법체제의 오남용으로 악명 높은 텍사스 주 수감시설을 배경으로 인종차별적 살인죄 조작의 전 과정과, 이로 인한 결과를 여과없이 보여 준다. 또한 그의 단골 주제인 부패한 사법 체제의 고발을 넘어 미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사형제도의 정당성까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

울 여를 시원하고 짜릿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학수첩·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랑이 식당, 범희내=단군신화에서 살마리를 얻어 쓴 창작동화. 아이들의 고민을 재미있게 풀어 내고, ‘자기 공정’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미호 호랑이 칭송문이 울려 퍼지고, 커다란 호랑이 그림을 걸어 놓은 식당은 뒷방에 아주 평범한 ‘범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 단지, 범희가 유별난 사고뭉치에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이라는 점만 빼고... <미래아이·9000원>



▲신나는 동시 딱 먹기=김미혜 시인이 계절별로 감상하기에 좋은 동시 37편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곁들여 안내했다. 윤석중·권정생의 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채는 유쾌 발랄한 시까지 두고두고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 동시가 얼마나 신나는 놀이감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세계를 펼쳐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창비·1만2000원>



▲달팽이의 성=임제대씨의 제4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신인 부문 대상 수상작. 아동문학의

경 파괴, 환경 보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마이클’은 어느 날 고래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는 광경을 목격한다.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래였고, 뒷방에도 고래는 마이클에게 말을 걸며 도움을 청하는데... <책과꿈나무·1만1000원>
▲남사당 조막이=조선시대 놀이패 남사당패의 삶을 그린 동화. 머슴살이가 싫어 남사당패에 들어간 소년 흥수가 조선 팔도를 들쭉이 는 남사당패 조막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사당패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뜨인돌어린이·9800원>

어린이 책꽂이

주요소재인 마녀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의 감각과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창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추리 소설 기법을 접목해 글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세련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웅진주니어·9000원>

▲오늘 아침에 고래를 만났습니다=영국 작가 마이클 모퍼고의 작품으로 런던의 템스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 해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환경 보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마이클’은 어느 날 고래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는 광경을 목격한다.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래였고, 뒷방에도 고래는 마이클에게 말을 걸며 도움을 청하는데... <책과꿈나무·1만1000원>

▲남사당 조막이=조선시대 놀이패 남사당패의 삶을 그린 동화. 머슴살이가 싫어 남사당패에 들어간 소년 흥수가 조선 팔도를 들쭉이 는 남사당패 조막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사당패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뜨인돌어린이·9800원>